

국내외 최초 역사 ‘레지던시’… 30년 족적 살피다

광주시립미술관 1995년 이후 창작스튜디오 30주년 기념
포럼·오픈스튜디오·리뷰 등 4개 프로 7일~12월 3일까지
팔각정 스튜디오·북경창작센터·국제레지던시 본격 조망

처음 레지던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모든 미술 인들은 지지했고, 서로 레지던시 입주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펼쳤다.

레지던시 입주는 당시만 해도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었지만 부재한 작업공간을 해결하는 동시에 자신의 작업에 대해 비상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광주가 그 레지던시에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한 곳이었다. 중외공원에 자리한 ‘팔각정 스튜디오’가 1995년 국내 최초의 레지던시로 문을 열면서 이 지역의 새로운 미술 트렌드를 창출했다. 50대 전후 작가들은 팔각정 레지던시를 선행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계기가 돼 지역작가의 해외미술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말에는 북경창작센터가 국내 최초 해외 레지던시로 개관해 10여년 동안 운영. 광주미술의 내외연 확대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이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이 개관 이후 30년간의 시립미술관 국내외 레지던시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창작스튜디오 운영 30주년 기념포럼 및 관련 행사’를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눠 오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2025 국제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7~8일 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를 비롯해 ‘2025 국제레지던시 리뷰’(19일 시립미술관

세미나실), ‘2025 청년예술센터 입주예술가 발표전’(14~23일 남구 사직동 청년예술센터 전시실), ‘레지던시 30주년 기념 포럼’(12월 3일 시립미술관 로비) 등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1992년 지역 공립미술관 가운데 최초로 개관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작가 양성 및 창작지원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으로 △팔각정 창작스튜디오(1995~2011 중외공원)를 시작으로 △양산동 창작스튜디오(2004~2013) △북경창작센터(2009~2020, 코로나 19 봉쇄 조치 관련. 2022~2023 송광 현지 광주 시 문화예술 홍보관 운영 대체) 등 공간 운영에 있어 타지역 미술기관을 압도했다.

또 이목을 사로잡는 것은 광주 미술인의 국내외 창작활동 지원 및 국제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중외공원 안에 2017년 개관한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다. 여기서 독일(뮌헨시 문화부), 대만(타이난 사오롱 컬처파크), 일본(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캐나다(몬트리올 아틀리에 서클레어) 등 해외 협력기관과의 작가·연구자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문화 생산자 지원 및 연대를 도모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역 신진예술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청년예술센터(구, 청년예술인지원센터)를 2016년 개관,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먼저 ‘국제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는 올해 입주·교류작가 3인의 창작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이 국내외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레지던시의 30주년을 조망하기 위한 ‘창작스튜디오 운영 30주년 기념포럼 및 관련 행사’를 오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갖는다. 사진은 북경창작센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광주작가들.

며, 비평가 현장 크리틱과 오픈스튜디오로 구성된 이자 ‘정주에서 비거주 & 네트워크’로의 아트 레지던시 유형변화에 따른 동향 연구를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인을 통해 공론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거쳐 간 국내외 작가는 340여 명으로, 문화예술생산지원 및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주시립미술관의 30년 간의 역할을 단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례로 손색이 없다.

윤익 관장은 “올해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들을 모두 망라해 잘된 점과 잘못

된 점을 살피는 한편,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레지던시는 국내외 기관의 레지던시 중 처음 운영된 것으로 지역작가의 해외진출은 물론이고 교류 거점을 수행했다. 지금은 입주나 교류, 방문 등 다양한 의미의 레지던시를 실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저명한 작가 및 비평가와 연을 맺는 계기가 되는 등 지역미술의 내외연 확장을 꾀했다”며 “이제는 많은 예술인들이 광주를 더 많이 찾아왔으면 한다. 거버넌스를 조직해 많은 창작공간간의 협업을 구축하는 계기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7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2025 예술날개 페스티벌’을 펼친다. 사진은 실로암사람들이 프리뷰 공연으로 선보인 ‘생애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

7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전시 등 17개 단체 참여

장애인이 중심이 돼 비장애인과 함께 펼쳐는 문화예술축제 ‘예술날개 페스티벌’. 장애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첫 선을 보였다.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우러져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불리는 광주의 정신을 담은 행사로 주목받았다.

올해 ‘예술날개 페스티벌’은 오는 7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광주형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장애 예술 프로그램과 창작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내 심장의 날갯짓’이라는 주제에는 예술을 통해 모두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장애예술이 더 큰 무대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겼다. 축제에 앞서 광주문화재단은 장애인이 어렵지

않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7개 복지관 등 생활거점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애예술인 단체 10곳이 뮤지컬과 음악, 난타, 시각미술, 공예 등 폭넓은 장르에서 창작활동을 이어온 가운데 이번 축제에서 이들의 활동을 접할 수 있을 예정이다.

먼저 지난 달 23일 프리뷰 공연 ‘생애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이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실로암사람들이 선보인 이번 창작곡은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활동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연극·수어·영상을 결합한 형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피해자와 350여명의 관객이 기억과 치유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합동공연은 6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모듬북 난타를 비롯해 서구장애인복지관의 하프연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의 리듬 악기 합주가 울려 퍼진다.

또한 남구장애인복지관의 뮤지컬 ‘반짝 상담

소’, 동구장애인복지관의 뮤지컬 ‘의적춘향’, 어둠 속의 빛 협동조합의 클래식 악기 합주, 모자이크의 클래식 악기합주, 내트를 1585의 국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행사기간 전시에는 작품 총 143점이 출품돼 장애예술인들의 다채로운 창작 세계를 만날 수 있다. 광주시장예인종합복지관과 광산구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문화광주시협회, 비알스페이스, 엠마우스복지관, 광주정신재활센터, 광주장애인미술협회, 광주장애예술인협회, 푸른하늘장애인복지회가 참여한다.

개막식은 6일 오후 1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예술날개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어둠속의 빛 협동조합의 보컬 신수지씨는 “무대에 오르며 더 이상 장애인이나 아티스트로 보인다는 게 가장 행복하다”며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게 제 날갯짓”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마한 역사문화, 왜 세계유산 돼야 할까

14일 순천 전남도청 동부본부 이순신강당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장 특별강연회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마한 토착 세력은 당대 사회·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다. ‘삼국지’와 ‘삼국사기’ 등에 기원전 1~3세기까지 경기와 충청, 전라지역에 존재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유물 발굴 등을 통해 실제로는 6세기까지 영산강 유역에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전남도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홍영근)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순천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마한 역사문화와 세계유산 등재’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갖는다.

특별강연에는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이 초청된다.

이 원장은 목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에서 석사, 목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남고고학회 편집위원장과 전남도 문화유산 전문위원 등

을 지냈고, 호남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마한 연구의 권위자다.

이 원장은 삼국시대, 특히 영산강 유역 고분과 취락, 토기, 한일 교섭사 등에 관한 연구를 해왔으며, ‘영산강 지역사회와 외래 매장풍습의 동화’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마한의 독창성과 세계사적 가치를 조망해왔다.

이번 강연에서 이 원장은 ‘마한이 왜 세계유산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며, 마한 역사문화의 가치를 생생히 전달할 계획이다.

해남 군곡리 유적(패총), 영암 내동리 쌍무덤 고분, 나주 반남·북암리 고분군, 담양 응운리와 태목리 유적 등과 함께 무안, 함평, 보성 등 전남 곳곳에 잠들어 있는 주요 마한

유산들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공유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1차 대상 유산으로 선정된 주요 국가 사적들도 살펴본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창극으로 되살아난 김동수 열사의 삶

청강창극단, 11일 오후 2·7시 장성문화예술회관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김동수 열사의 삶을 조명하는 창극이 펼쳐진다.

(사) 청강창극단(단장 박세연)은 오는 11일 오후 2시와 7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작 공연 ‘그대 먼 길 돌아 여기에’를 갖는다.

김동수 열사는 장성 출생으로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 행정본부 학생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

하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탄에 맞서 도청을 끝까지 사수, 22세 젊은 나이로 순화했다. 현재 고향마을에는 김동수 열사 생가가 보존돼 있으며, 조선대에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이번 무대는 김동수 열사의 삶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랑, 인간의 존엄성을 돌아본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과 장성 주민들의 치열했던 삶과 숭고한 희생을 창극으로 선보인다.

작품은 임진택 선생의 사설에 창작판소리 ‘오월광주’를 입체창으로 꾸며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광주의 상황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후반부에는 김백찬 작곡의 음악으로 김동수 열사와 함께 도청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무대에는 아버지 김호준, 아내 박세연, 군인 최윤석, 시민 윤세린, 어머니 김은숙, 순창 함승우, 남기 정승기, 동수 정성현, 진희 조아라 등이 출연한다.

박세연 단장은 “열사들의 청춘과 정신을 전통의 소리와 몸짓으로 되살려 관객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다.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며 내일의 세대에 전해야 할 가르침이다”며 “청강창극단이 꾸준히 추구해온 ‘전통의 현대화’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창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대는 전남문화재단 공연장협력 예술단체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정재경 기자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하고 있는 단원들